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기준금리 동결 배경과 전망

- 4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.0%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함.
 - 이번 결정은 물가 불안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1월과 3월 각각 0.25%p 인상한 효과와 최근 환율 하락의 영향을 지켜보기 위한 것임.
 - 이와 더불어 일본 대지진과 중동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의 확산과 가계부채 증가 문제도 기준금리 인상에 부담으로 작용함.
-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, 수요압력 증대,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등에 따라 물가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음.
 -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.7%로 물가안정목표(3.0±1%)를 초과하였고,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7.3%에 달함.
 - 최근 물가 불안을 감안하여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기존 3.5%에서 3.9%로 0.4%p 상향 조정함.
 - 두바이유 가격이 3월 배럴당 108.5달러에서 4월 1~11일 배럴당 114.7달러로 상승하는 등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
 - 정부의 물가 안정 및 금리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음.
- 그러나 이번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물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기준금리 대응 및 유동성 억제 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.
 - 현재의 기준금리 대응이 물가상승 속도보다 늦게 이루어져 물가 안정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함.
 - 성장과 물가 안정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중요하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더 확산되기 이전에 빠르고 과감한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.

(통화정책방향, 한국은행, 4/12)